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156호 【루계 제24934호】 주체104(2015)년 6월 5일 (금요일)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나가자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청년전위들의 기개 힘있게 과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최근 40여일동안 36 000여㎥의 언제콩크리트치기 진행, 500여m의 물길굴 피복

백두대지의 백암전역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받은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안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불가능을 모르는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4월 현지지도이후 돌격대원들은 1호발전소건설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40여일동안에 36 000여㎥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였다. 이 기간 500여m에 달하는 2호물길굴 상부피복공사와 수백m의 1호언제하류옹벽공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건설에서도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뛰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련이어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돌격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중요건설자재들이 공사장에 도착하고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운수기재들도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온 공사장에 애국충정의 불길, 보답의 열정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당이 제시한 발전소완공날자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하여 월별, 주별, 일별전투목표를 비상히 높이 세우고 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지휘부와 각 련단의 정치일군들은 기동예술선동대활동, 직관선전 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돌격대원들의 정치적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키고있다. 돌격대참모부에서는 언제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방도를 타입전선을 넓히는데서 찾고 언제좌우안에 일부 려단력량을 기동적으로 돌리고 10대의 혼합기들을 배치하여 타입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각 려단별, 대대별, 기업소별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언제와 물길굴공사장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언제콩크리트치기전투가 활발히 벌어져 만년언제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다.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5월 타입계획을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려단에서는 휘틀제작과 설치, 혼합물보장과 다짐 등 작업공정별로 시공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하루 최고 170㎥의 타입실적을 기록하는 위훈을 세웠다.

언제우안지지부공사를 맡은 황해남도려단과 언제좌안지지부공사를 맡은 황해북도려단에서는 혼합기, 양수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콩크리트타입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기본언제공사를 맡은 남강,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지에 내려온 건설건재공업성 일군들의 지도밑에 이곳 건설자들은 혼합물생산능력을 높이고 타입개소를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하여 6월에 들어와 전달에 비하여 하루 언제콩크리트타입량을 1.3배로 높이고있다.

2호물길굴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 함경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상부피복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평안북도려단의 지휘관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에 맞게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짜고들어 맡은 구간의 피복공사에서 높은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함경북도려단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대별, 구간별작업분담을 명백히 하고 여러 전선에서 피복공사를 동시에 벌려 공사속도를 종전의 1.5배로 높이고있다.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전투가 날이 갈수록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중요물동량수송이자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한 지휘부에서는 수송조건이 남달리 불리한데 맞게 기동적인 단위별수송경쟁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8.28청년돌격대판리국 운수기동려단,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제11려단 운수대의 운전사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증송의 경적소리를 높이 울려 맡겨진 세멘트와 골재, 혼합물수송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내각집중수송대와 각 도의 수송대들도 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수십수백리구간의 긴급물동수송전투를 벌려 언제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되여 발전소완공의 보고를 하루빨리 올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충정의 강행군전투에 진입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열의는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만년언제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청천강전역에 울려퍼진 신념의 메아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1 000명대합창공연 진행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6월 4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으며 대합창공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가 진행되였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의 대합창공연은 모든 건설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여 발전소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진행되였다. 하여 공연은 시작전부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발전소완공의 확신과 락관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더더욱 분출시켜주었다.

공연에는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전체 현장지휘부 일군들과 수백리 청천강전역에서 선발되여 모여온 각 단위 지휘관, 로력혁신자들 1 000명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연은 설화와 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로 막을 올리였다. 우리 혁명의 철리와 참된 삶의 좌우명을 사상예술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평양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가는 속에 설화와 합창 《영광의 땅 보천보》의 선률이 청천강반에 련이어 울려퍼진 공연은 여러개의 장과 부분으로 구성되여 진행되였다.

합창 《혁명군의 노래》, 《사향가》,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밀림속의 승전가》 등과 《동지애의 노래》,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인생의 영광》 등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장들에서는 항일의 전통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혁명은 동지애의 력사로 승리해온 혁명,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억세게 다그쳐가리라는 신념의 맹세를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자작시 《매달 25일》을 비롯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창작된 작품들과 합창 《단숨에》, 《나의 청춘 조국에 바쳐가리》, 《인민의 환희》,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등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장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공사장마다에서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며 청천강용사로 성장해온 긍지와 자랑, 앞날에 대한 꿈과 포부, 항일의 나날 보천보에 타올랐던 횃불을 청천강전역에서 위훈창조의 불길로 더욱 거세차게 지펴갈 출연자들의 불같은 맹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공연은 종장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합창 《불타는 소원》에 련이어 《발걸음》의 힘찬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청천강용사들의 의지를 반영한 설화에 이어 우렁차게 터쳐진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서 살아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을 청천강용사들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현장지휘부 정치부에서는 이번의 대합창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곡목선정과 구성작업, 음악편성 등에 큰 힘을 넣고 모든 단위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공연참가의욕과 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였다.

특히 태양절에 진행한 공연때처럼 최대의 공사실적을 올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공연에 참가하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면서 각 단위들이 분산되여있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완성되게 하였다.

이번의 대합창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축전장에로 향한 총공격전을 더욱 억세게 다그쳐나갈 청천강용사들의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류기풍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최고실적 기록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온 나라에 조국해방 항일혁명, 당창건 일화돐을 뜻깊게 빛내이기 위한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착공이래 최고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중앙동물원 전반적인 구획들에서는 지금 자연박물관 1, 2호동과 본관, 수족관골조공사를 비롯한 30여개 대상건설이 립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의 비상한 열의속에 철갑상어못과 수금사, 명금사의 련못들, 맹금사관망대를 비롯한 특색있는 관람시설들과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할 새로운 건설물들이 우렷한 자태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2만여㎡에 달하는 관람도로가 새로 포장되여 중앙동물원의 여러 구획들이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동물원에 새로 일떠서는 건설대상형성안들을 손색없이 완성시켜주시고 지난 4월에는 공사성과를 더욱 확대할수 있게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파견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의 혁명한 령도밑에 자연동물원을 방불케 하는 특색있는 동물놀이터들과 규모가 큰 건물들의 골조공사성과가 부쩍 확대되였다. 이들은 기초콘크리트치기와 동시에 5천여장의 블로크를 자체로 찍어 지상골조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사무청사와 동물사양관리연구소를 비롯한 여러동의 부속건물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중앙동물원 상부지구건설대상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펼쳐나가고있다. 부대아래 여러 단위 군인건설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탐구로 합리적인 기공구와 지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면서 선물동물2관의 골조공사와 명금, 맹금사들에 대조롱을 형성하기 위한 전투를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공사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한편 관람도로포장공사를 맡은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한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지난 1단계 공사구획의 2만여㎡에 달하는 관람도로를 포장하는 창조적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자연박물관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들에서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지난 5월전투기간 지도국적으로 3천여㎡에 달하는 내수합판과 5천여대의 강판발대를 비롯한 많은 자재와 건설수단이 확보되여 공사에 리용되였다.

지도국아래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송화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이 자연박물관골조공사와 수금사의 련못바닥콩크리트치기 등 20여개 대상건설을 립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공사기간 국가계획위원회와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많은 세멘트와 강재 그리고 8천여㎥에 달하는 흔석을 보내주어 공사장의 숨결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하였다.

공사지휘부와 시공단위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속에 이달에도 높은 공사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지원철

삼지연지구철길건설착공식 진행

【삼지연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혜산—삼지연사이에 넓은 철길이 건설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삼지연지구철길건설착공식이 4일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삼지연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착공식에서는 오수용동지의 보고에 이어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 부책임자 리성삼, 량강도돌격대 려단장 황학록, 평안남도돌격대 려단정치부장 리성위, 북부철길건설청년돌격대 평양시려단 대대장 김성덕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를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이며 간곡한 유훈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철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시고 위연—못가사이 좁은철길을 넓은철길로 건설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실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실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은 백두대지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생애를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지구건설은 항일혁명사적을 만대에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건설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맡은 공사를 제기일에 끝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산악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말하였다.

해주—하성사이, 이천—세포사이 철길건설을 짧은 기간내에 끝낸 철길건설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떠밀어주는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온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방대한 량의 로반토량공사와 철길부설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기어이 완공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철길로반공사와 옹벽공사를 비롯한 대상건설에서 설계와 시공,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삼지연지구철길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는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철길건설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며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군들이 건설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돌격의 기수가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을 다그쳐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냄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산판마다에 타오르는 증산의 불길

림업부문에서 통나무생산 1.2배, 동발나무생산 1.4배로 장성

림업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산판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고있다.

정초부터 드세찬 공격전으로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5월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통나무생산은 1.2배, 동발나무생산은 1.4배로 장성시킨 이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림업성 일군들은 연유를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통나무와 동발나무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지휘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림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더 많은 통나무와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강도높이 들이대고있다.

림업성과 관리국, 림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책임일군들은 채벌구들에서 로동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증산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한편 철도운수부문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고 기관차, 화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해당 철도역들에 쌓이는 통나무와 동발나무를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있다.

생산의 큰 몫을 담당한 자강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면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희천, 강계, 위원, 삼락갱목생산사업소와 자성림산사업소의 일군들은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 등을 산지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키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자동차와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서부지구의 탄광들에 대한 동발나무보장을 기본으로 맡은 평안남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비약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덕천, 북창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겨울철기간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산지토장에 쌓아놓은데 맞게 자동차와 뜨락또르들의 수리정비를 짜고들어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신양, 덕련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륜전기재들에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마감나르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장진림산사업소와 후원, 수동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통나무와 동발나무생산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특히 후원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일군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동창, 벽동, 태천, 천마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지난 5월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주되는 힘을 넣어 통나무와 동발나무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안변림산사업소와 천내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수리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도로보수를 제때에 하여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산판에 베여놓은 통나무와 동발나무운반을 잘해나가고있다.

량강도림업관리국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와 동발나무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59돐에 즈음하여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 꿋꿋이 이어가리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의 맹세 백두산정에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백두의 붉은기 높이 만난시련을 과감히 헤치며 도도히 전진하는 선군혁명대오에 힘차게 울려퍼지는 노래가 있다.

…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노래《가리라 백두산으로》, 그것은 노래이기 전에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선언으로 시대를 진감하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여 영원한 백승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열기가 강산에 파도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입니다.》

백두산, 세대와 년대를 넘어 어제도 오늘도 천만군민의 대오가 성스러운 혁명의 성산으로 도도히 굽이쳐흐르는 선군조선의 현실이 새겨주는 력사적의미는 참으로 심오하다.

지금으로부터 59년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여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력사적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신것은 1950년대 중엽이였다. 준엄한 시기였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감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던 엄혹한 때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할것을 결심하시였다. 대용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속담에《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가 바로 그렇다, 초행길인것만큼 마음을 먹고 한번 걸어보라고 적극 고무격려하시였다.

어중이떠중이들의 훼방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주체45(1956)년 6월초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조직하신 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에 오르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전적지답사단이였다.

그날은 6월 5일이였다.

삼도왜적을 벌벌 떨게 하시던 빨찌산 김대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생생히 간직되여있는 천고밀림, 일제의 백만대군을 삼대베듯 쓸어버리던 격전장들과 조국에로의 진군나팔소리가 금시라도 쟁쟁히 울려올듯싶은 울창한 수림들…

답사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며 실로 많은것을 절감하시였다.

보천보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경건히 인사를 드리시고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신 장소의 황철나무며 일제의 경찰관주재소건물과 소방회관,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자리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포악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답사로정을 앞으로는 백두산마루까지 련결시켜놓으실 철석의 의지를 굳히시였다.

보천보를 떠나 삼지연못가에 이르시여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실 숭고한 뜻으로 가슴 불태우시였다. 삼지연못가에서 숭엄히 안겨오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의 횃불을 높이 지펴올리신 백두산은 온갖 시련을 헤쳐온 조선혁명의 력사를 길이길이 전하며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답사행군대오가 삼지연못가를 떠나 갑무경비도로에 들어섰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단성원들에게 동무들, 이제부터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일제의 삼엄한 경계속을 뚫고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한 갑무경비도로로 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력사적인 길로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타고 지날수 있겠는가, 우리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답사행군대오가 전진하는 길우에 《유격대행진곡》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단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생활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친히 밥도 지으시며 항일의 전구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령도아래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전적지답사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 나날과 더불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이 개척되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백두산으로 오르고 또 오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던 그때 우리 장군님은 10대이시였다.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 누구나 개척할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였다.

전후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감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끌어넣으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할 때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력사의 그 길이 있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어지럽히려던 온갖 궤변이 산산이 부서지고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 변함없이 높이 솟아 빛을 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개척하신 그 길을 따라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세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백두산으로 올랐다. 한 평범한 처녀로동자가 심장의 고백을 터친것처럼 우리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려는 불같은 열망,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시련을 맞받아뚫고 기어이 최후승리를 떨치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피를 끓이였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어제도 오늘도 백두산에 오르고올라 백두의 넋과 기상을 심장에 간직하고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심으로써 그 어떤 모진 풍파가 휘몰아친대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10대의 시절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 영원히 이어가야 할 성스러운 길이다.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헤치신 백두의 행군길이야말로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진리로 확증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 일심단결의 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오르고오르며 떠올린 고귀한 혁명의 산아이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백두의 행군길은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지난 4월 18일 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백설을 날리며 세기의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정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다!

백두산에서 영원한 백승의 진로를 다시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의 천만군민은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맹세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리라!

그렇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억세게 추켜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짓부셔버리고 기어이 최후승리를 떨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인선

항일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시는 길에서

천금보다 귀중한 재보

주체60(1971)년 9월 어느날 청봉숙영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진군하시였던 력사의 자욱이 새겨진 숙영지를 돌아보시고 구호나무앞에 이르시였다.

나무에 쓴 구호들을 한자한자 읽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된 투쟁을 보여주는 몇건의 문건자료들을 보관하고있으면서도 크게 자랑하고있는데 우리는 이에 비할수 없이 의의가 큰 구호문헌들을 가지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청봉숙영지의 구호나무들은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라고, 그러므로 구호나무보존관리사업을 잘해야겠다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

이날 청봉숙영지의 일군들은

력사의 증견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건설현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수령님의 동상배경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삼지연의 맑은 물이 시원하게 더 잘 보이도록 동상뒤에 있는 고목들을 베여버리고 키낮은 전나무들을 심으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의 동상뒤쪽의 고목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고목들은 다른 곳의 나무들과는 달리 항일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삼지연에 력사의 자욱을 남기신 혁명사적과 관련되는 증견자인것만큼 그대로 두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그 나무들을 새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고목들을 다 귀중히 여기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삼지연못가에 있는 나무들은 어느것이나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는 매우 귀중한 나무들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그 고목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는 증견자로 오늘까지도 소중히 보존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태양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의 성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온 세상 보란듯이 우뚝 솟아올라 그처럼 찬란히 빛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던가.

그것은 아마도 백두산이 자기의 산정에 조선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뜨겁게 간직하고있기때문이 아니랴.

이런 숭엄한 사상감정에 휩싸일수록 일찌기 백두산이 안고있는 태양의 력사를 새롭게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의 발자취가 어린 그때로부터 혁명의 성산으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삼지연에로의 행군을 이어가던 답사대오가 중흥등판을 지나게 되였다.

순간 중흥등판의 여기저기에서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중흥등판에 오른 답사성원들은 백두산이 보인다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아득한 밀림의 바다 한끝에 백두산이 웅건장중하게 솟아있었던것이다.

중흥등판에 서시여 혁명의 성산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서로서로가 크나큰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바로 이때 동행한 지리교원이 답사행군대원들에게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리교원은 백두산의 높이와 이 일대가 100만여년전의 화산분출로 생겨나게 된 사실 그리고 백두용암지대의 넓이에 이르기까지 막히는데가 없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에 심취된 답사성원들은 백두산이 정말 나이도 많고 높기도 하다고 탄복하였다.

그러나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성원들에게 지리교원과 전혀 다른 백두산에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세계에 백두산처럼 아름답고 장엄한 산은 없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을 잊지 않고계신다. 백두산에는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투쟁의 자취가 스며있다. 백두산은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되기때문에 세계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있다. 백두산은 강의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기상인양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조국땅 북변에 거연히 솟아있을것이다. …

중흥등판에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하신 음성을 새겨들으며 지리교원과 답사성원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안고있는 위대한 력사의 높이에 대한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는가.

숭엄해지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답사성원들은 마음속으로 백두산이 그처럼 높고 빛나는것은 오랜 력사를 자랑하고 지리적해발고가 높아서가 아니라 혁명의 성산에 깃들어있는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이 위대하기때문이라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목청껏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빛내여주신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오늘 백두산은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존엄떨치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로 그 이름 온 누리에 더욱더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력사로 빛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끝없이 오르고 또 오를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세기를 이어 빛나는 지원의 높은 뜻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오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89돐이 되는 날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는 천만군민은 일찌기 지원의 뜻을 안으시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1926년 6월 5일 서거하실 때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시며 찬바람을 맞받아 쉬임없이 걸어가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한평생 지원의 사상을 지론으로 삼으시고 투쟁하시였다.

언제인가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어머님이신 리보익녀사앞에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

나라의 해방을 위해 대를 이어 싸울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맥박쳐흐르는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보느라면 선생님께서 한평생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지원의 심오한 뜻이 더욱더 가슴에 사무쳐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추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후날 삼사년이면 끌장을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고 해방후에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있는 민족분렬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에 새삼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고 쓰시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의 총칼아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지하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못 내던 때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것은 바로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주체6(1917)년 3월 23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핵심을 키워내시고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아놓으신데 기초하여 평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데 대한 조선국민회의 목적, 과업과 투쟁방도 등에는 지원의 사상이 담겨져있었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감옥생활로 쇠약해지신 몸을 돌볼 사이도 없이 국내외의 여러 지역들을 오가시면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복구확대해나가신 김형직선생님이시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한생은 혁명가는 자기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참다운 모범으로 가르쳐주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확신을 안으시고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도 력사에 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헤치신 력사의 새벽길은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시련을 걸음걸음 이겨내시며 독립성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거룩한 애국의 행로였다. 그 길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시며 력사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모진 광풍을 맞받아 일생 쉬임없이 애국의 길을 걸고걸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 각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디 가나 항상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벗과 우정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도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물려주신 유산의 전부였다.

림종을 앞두시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반석녀사께 내가 죽은 다음 이 총이 나지면 재미가 없으니 땅속에 묻었다가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도록 하오라고 하시고는 자제분들에게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조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시였다.

정녕 김형직선생님의 전생애는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꺾일줄 모르는 굳센 의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강의한 혁명가의 고결한 한생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 빛나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전광남

력사의 땅을 찾으신 사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면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주체98(200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북단 연사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였다.

멀고 험한 로정을 거쳐 북방의 연사지구에 당도하신 그이께서는 사지봉혁명전적지와 안굽혁명전적지, 연사혁명사적관을 차례로 돌아보시고 상단산혁명전적지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두달 앞두고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던 력사의 땅 상단산혁명전적지!

구호문헌들과 사령부귀틀집 자리, 숙영지자리 등을 돌아보시며 전적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발자취를 더듬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조직을 잘하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천만군민을 15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신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을 때 그이의 크나큰 심장에는 어떤 웅지가 자리잡고있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내가 이번에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려고 하는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15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조선의 정신, 백두의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도록 하자는데 있다. …

혁명의 승리는 사상과 신념의 승리, 정신력의 승리이다. 위대한 혁명정신에 의하여 추동되는 혁명에는 침체와 답보, 실패와 좌절이란 있을수 없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시여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으시고 온 나라에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더 약동하게 하시려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으신것이였다.

그 어떤 중대한 일을 구상하고 조직하실 때마다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앞세워나가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온 나라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되였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를 향해 달려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전환적국면마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여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방식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10월 백두산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신념으로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날에날마다 창조되고있다.

강원남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빨찌산가요, 새 세기의 혁명가요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심원한 음악세계, 혁명세계를 심장에 새기며

혁명가요는 오직 우리 조선에만 있는 특이한 음악세계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피어린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첫 페지를 펼친 우리의 혁명가요력사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명곡재부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 땅을 또다시 거세차게 휩쓸고있는 백두산바람은 항일투사들이 사형장에서, 설한풍속에서 부르던 《적기가》나 《혁명군의 노래》처럼 그 사상예술성이 음악의 경지를 벗어나 오직 《혁명》이란 단어와만 결부시킬수 있는 명곡들을 낳았고 혁명가요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2015년에 오늘의 《혁명군의 노래》, 《적기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새 세기 혁명가요가 태여난것이야말로 달리는 될수 없는 조선혁명의 합법칙성이며 또한 력사의 필연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오르자!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공경은 백두산과 관련한 수많은 시와 노래들, 예술작품들을 낳았다.

그러나 올해에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창조형상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울림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불러오던 백두산에 대한 노래들과는 확실히 다른 충격적인 메아리를 안겨주었다. 모란봉악단고유의 개성적인 창조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술적형상의 특색때문만이 아니다.

인민들이 새 세기의 백두산행군가라고도 일컫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여태껏 백두산에 대한 노래들을 례사롭게 불러오며 백두산을 안다고 혼연히 외워오던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백두산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백두산에 올랐던 추억이 누구에게나 소중히 간직되여있건만 어이하여 백두산으로 가자는 시대의 부름은 우리의 심장에 그렇듯 충격적인 메아리를 울려주는것인가.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지난 4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당보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실렸다. 우리 혁명사에 길이 남을 사변적인 소식과 더불어 울려퍼진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의미는 참으로 비상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발걸음을 따라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이 《혁명군의 노래》를 합창하며 눈보라폭풍을 헤치면서 백두산에 오르던 그때의 흥분을 자기의 것으로 체험해야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담겨진 깊은 사상을 심장으로 체득할수 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백두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백두산에 왜 가보아야 하는가고 묻는다면 누구든 혁명의 성산에 가야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고 조선혁명의 력사를 알게 된다고 쉽게 대답할것이다. 백두산을 시와 노래, 화첩으로 그려보던 사람들, 어느 한때 백두산에 오른 추억으로 혁명의 성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묻고있다.

천만국사로 누구보다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혁명정신의 화신이시며 최고체현자이신 그이께서 어이하여 백두산에 그리도 자주 오르시는것인가. 평화의 오늘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매일같이 날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정예전사들인 전투비행사들이 어찌하여 굳이 눈길을 헤치며 혁명의 성산에 올랐는가.

오늘날 백두산으로 우리를 부르는 시대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강렬하고 심각하며 절절하다. 시대의 이 절박한 부름이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태여나게 한 창작의 불꽃이며 또한 이 명곡의 주제이기도 하다.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사상적핵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구절에 있다.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사상과 정신이 태여나는 고향이라는 보다 숭고한 의미가 무겁게 담겨져있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주인공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고 상상도 못했던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앞을 막아나서고있는 오늘날 백두산은 자기의 유명한 백설령봉들과 칼바람에 지난 시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적의미를 품어안고 빨찌산의 후손들을 부르고있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서 천신만고 모든 피로움 달게 여길 각오가 되여있는가고 묻는 선렬들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울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금 랭철하게 검증해보고 우리의 심장을 생신하고 진한 혁명의 피로 꽉 채워 우리모두가 새시대의 혁명가로 다시 한번 태여나야 할 때이다. 그런 사상과 정신을 심어주는 유일한 곳이 다름아닌 백두산이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백두산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굽힘이 없는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벼려주는 혁명의 전구이고 이 땅우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희망의 등대이며 당을 따라 끝까지 갈 영광의 길에 필승의 넋을 심어주는 태양의 성산이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오르시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메아리이다.

이렇듯 성스러운 백두산에로 가는 길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절에 체험한 한두번의 답사추억으로 감히 이야기할수 없음을 노래는 준절히 깨우쳐주고있다. 《ㅌ. ㄷ》를 무은 다음 화전에서 직행하였더라면 늦어도 5~6일안에는 백두산에 도착하였을것이라고, 백두산은 결코 마음만 내키면 아무때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며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갈수 없다는 여기에 백두산이 가지는 참의미가 있었고 가지 못할수록 더 가고싶어진다는 여기에 바로 백두산이 가지는 참매력이 있었다고 감회깊게 서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글줄앞에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우리모두의 마음을 엄숙히 세워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다시금 읽어보며,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해의 뜻깊은 4월에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을 사무치게 새겨보며 우리 노래를 불러본다. 그러면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노래제목과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가사구절에 담겨져있는 혁명정신과 체험에 관한 철학이 우리 심장을 파고든다.

인간에게 있어서 체험은 인생의 리정표를 세워주고 인간의 성격과 기질을 련마해주며 한생을 불길처럼 태워줄 삶의 좌우명을 정해준다.

생활의 진리는 부모들의 혼시와 책이나 예술작품을 통해서도 깨달을수 있지만 혁명의 진리는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빨찌산회상기의 글줄을 읽었다고 해서 다 깨달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혁명의 진리는 반드시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만 신념으로, 의지로 전환될수 있으며 한생토록 자신을 수양하고 채찍질하는 영원한 생의 불길로 타번질수 있다.

물론 전기로의 화염앞이나 풍랑을 헤치는 고기배의 갑판에서, 탄전의 지하막장이나 들끓는 전야에서 성실한 근로의 땀으로 겪는 체험도 값비싸다.

하지만 그 모든 체험우에 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온몸으로, 뼈속깊이 느껴야 할 백두산칼바람맛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보라치는 백두산정점에 오르시여 백두산은 장군님의 고향이라고,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명곡에도 있듯이 한평생 빨찌산정신으로 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인생은 주체혁명의 계승자들과 백두산을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굳건히 결합시켜주신 백두산의 아들의 참된 삶의 본보기였다.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탄생하신 그이께서 왜 한생토록 백두산에 오르시여 사나운 칼바람을 맞군 하시였는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간고하고 준엄한 길을 그렇듯 완강하게 헤쳐오신 장군님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어디에 굳건하게 뿌리를 두고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분이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언제인가 백두산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씨가 사나운데 좋은 때에 오르자고 만류하는 일군들에게 내가 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자고 하는가,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를 깊이 깨달을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중중첩첩 산악이 막아서도 쉬이 넘을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다! 한두번이 아니라 열번이고 백번이고 한생토록 올라가보아야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수 있다!

이것이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사상이며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그이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이신 우리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의 새로운 계승자들에게 이르시는 간곡한 당부이다.

아무리 준비된 혁명가라고 해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상에 공백이 생길수도 있고 정신에 곰팽이가 낄수도 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아들딸들을 한생토록,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쇠소리나는 혁명가로 키워주는 사상단련, 정신수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가 바로 백두산이다. 그가 누구이든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혁명정신과 넋을 다시금 든든히 심어주는 백두의 칼바람이야말로 빨찌산학교의 높은 교단에 오늘도 래일도 혁명의 영원한 스승으로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음성, 항일투사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성스러운 혁명의 학교에 어찌 졸업이 있을수 있으랴.

참다운 계승은 훌륭한 유산과 함께 뼈저린 체험을 떠나서 론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 사생결단으로 헤치신 길, 우리 장군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개척하시고 한생토록 걸으신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의 새 세기 행군로로 변함없이 정해주시고 앞장에서 리정표를 세워주시는 백두산길에 과연 어떤 심원한 혁명의 진리, 계승의 진리가 자욱자욱 찍혀져있는가를 명곡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가르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혁명군의 노래》를 부르시며 눈보라폭풍을 뚫고 백두산으로 오르시던 그 로정에, 최고사령관동지와 전투비행사들이 빨찌산 김대장과 항일의 전우들처럼 어깨겯고 둘러앉아 천지를 진감하는 함성드높이 사진을 찍던 그 자리에 몸도 마음도 세워보자. 숙영의 달밤에 군용밥통의 물이 실실 끓는 우등불가에서 빨찌산회상기도 읽어보고 신들메를 단단히 매고 눈길을 헤치고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마루에 올라보면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그 절절한 울림이 왜 그처럼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지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그렇다. 봄날에도 겨울에도 가고 꿈결에도 가고 그 언제나 가자. 청춘시절에도 가고 머리에 흰서리내린 시절에도 또다시 가고 한생토록 대를 이어 백두산으로 가자.

이 땅우에 강성국가가 일떠서고 사회주의 락원이 펼쳐진 그날에 가서 력사의 광풍도, 풀뿌리맛도 체험할 곳이 더는 없다고 해도 백두산만은 혁명의 학교, 혁명의 용광로로 거연히 높이 솟아 변함없는 칼바람소리로 조선의 아들딸을 부를것이다. 항일투사들의 《혁명군의 노래》와 함께 우리 세대의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를 부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는 대를 이어 백두산으로 오를것이다.

《적기가》의 산아

주체음악의 보물고에 가득한 혁명에 대한 노래들중에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처럼 구호나무의 글발이 제목이 되고 형상의 바탕으로, 종자로까지 된 명곡은 없다. 신비한 이 명곡은 마두산 혁명전적지에 묻주처럼 서있는 한그루 구호나무에서 태여났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에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시기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되여있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지닌 빨찌산근거지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혁명신념에 대한 주옥같은 명언이 새겨진 구호나무가 발굴된 력사적 사연으로부터 명곡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음악세계가 시작된다.

마두산밀영이 꾸려진 1938년은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력사에 참으로 피절은 교훈을 아로새긴 극적인 봉우리로 기록되여있다.

1937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백두산지구진출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앙양일로를 걷고있던 조선혁명은 일제가 조작한 《혜산사건》으로 하여 사나운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어제까지 혁명대오에서 전우로 함께 싸우던 사람들속에서 신념을 지켜 혀까지 물어끊은 견결한 투사들과 감옥에서의 고문을 견디여내지 못하고 혁명가의 신념을 휴지장처럼 집어던진 배신자, 변절자가 나왔다. 당시 열하원정의 실패를 계기로 동북항일련군에서도 투항분자, 도주자들이 생기였다. 1938년 12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이 시련의 시기에 당시 항일투사들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론의되던 혁명가의 본태에 대한 근본문제, 항일혁명투쟁 전 과정에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인간문제로 제기되였던 혁명신념에 대한 정의가 바로 마두산밀영의 구호나무글발로 새겨지게 되였던것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승승장구하던 혁명의 앙양기가 무서운 좌절과 시련을 겪는 극적인 시기에, 인간의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는 첨예한 순간에 가장 적라라하게 판별되는 법이다. 자기가 숭상하는 리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위해서라면 굶어죽을각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까지 되여있는 사람이 진짜혁명가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철학을 심장에 쪼아박은 마동희동지와 같은 견실하고 투철한 투사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웨침을 먹으로가 아니라 피로 쓴 글발로 력사에 길이 남겼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것은 항일투사들의 인생관의 종자였다. 마두산밀영의 구호나무는 투사들이 이 땅에 남긴 혁명유산인 수백수천의 구호나무들의 문주와도 같았다.

이렇듯 깊은 사연이 담긴 구호나무글발이 어떻게 되여 70여년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 세대의 《적기가》와도 같은 신념의 명곡을 낳을수 있었는가.

2014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구호나무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자신의 혁명적신념에 대하여 돌이켜보면서 이 구호문헌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력사적인 기념사진과 함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노래가 태여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라는 《적기가》의 피절은 구절들과 대비할만한 환경도 정황도 사실상 없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조건이나 환경은 그 양상이나 형태에서만 달라졌을뿐 여전히 준엄하고 어렵다. 비록 감옥이나 단두대는 없어도 우리들 매 사람의 혁명에 대한 절대불변, 백절불굴의 신념을 검증할 그런 환경이나 정황은 없는것이 아니다.

14명의 육탄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결사전의 하늘길로 날아오르던 그런 정황도 있고 수령의 초상화와 구호나무를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을 주저없이 던지며 불속에도 물속에도 뛰여들어야 할 그런 순간이 닥쳐올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심각한 신념의 시험지가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매일, 매 시각 우리의 량심앞에 놓여지군 한다.

자재와 자금도,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공장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야 하고 어떤 극악한 환경에서도 당에서 제시한 전투과업을 무조건 수행해야 할 그런 때에도, 깊은 산중에서 수십년을 홀로 나무를 심고 지켜야 하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과학탐구의 한생을 보낼 때에도 지어 직업을 선택하고 자식들의 전망을 론할 때조차도 신념이 모든것을 결심하고 결정한다. 앞에서는 로동당 만세를 부르고 돌아앉아서는 당정책을 흥정하고 제살궁리나 하는 이중적인 인간들,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아 우는소리를 하는 패배주의자들, 순간의 고생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국도 가정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타매할 때에도 우리는 신념을 론한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라는 구호에는 죽음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말라는 사상과 함께 한생토록 순간도 신념이 흔들리지 말라는 사상도 담겨져있다.

《적기가》를 부르던 투사들의 모습을 평범하고 례사로운 날에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신념의 구호나무는 억세게 뿌리를 내린다. 자신보다 조국과 혁명을 먼저 생각하며 어떤 시련과 고통도 무섭지 않다고 맞받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역경앞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수령 만세를 부르며 참다운 생의 마지막 걸음을 힘있게 내짚을수 있다. 마두산밀영의 한그루 구호나무의 글발을 신념의 거울로 여기시며 그 열두글자에서 새 세기의 《적기가》가 태여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자신의 신념을 세워보아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노래의 진정한 음악세계를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명곡으로 떠받들어준 소나무, 백옥, 참대의 형상에는 또 얼마나 심오한 력사의 무게가 담겨져있던가.

혁명가의 신념을 소나무, 백옥, 참대의 형상으로 명백하게 가르쳐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주체63(1974)년 4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이 령도하는 정의로운 위업에 한몸바칠 결심을 품고 나선 혁명가는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철창속에서 일생을 마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불에 타죽을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혁명이 또다시 준엄한 시련을 겪던 주체45(1956)년 어느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군님께 혁명가들에게는 죽을때에도 버리지 말고 베고 죽어야 할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신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혁명적신념이라고,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 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 죽는 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라고 대답을 올리시였다.

한생토록 혁명적신념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죽을 때 혁명적신념을 베고 죽는 인생의 최우등졸업생이 되라!

우리 장군님의 이 귀중한 인생의 좌우명이 오늘날 소나무, 백옥, 참대의 형상과 더불어 명곡의 구절구절로 엮어진것이다.

《성스런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기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키워준 품 받드는 량심도 의리도 순간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이 심장 높뛰는 한 일편단심 따르리》라는 명곡의 구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오늘날의 혁명신념에 대한 가르치심들이 그대로 가사화된것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이렇게 태여난 노래이다.

김형직선생님의 3대각오에 대한 유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신의 피어린 체험으로 찾으신 인생의 좌우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심장에 쪼아박으신 혁명가의 인생철학—조선의 혁명가들이 계주봉처럼 이어받고있는 불멸의 명언들이 바로 새 세기의 《적기가》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라는 명곡을 낳았다.

그야말로 백두산칼바람소리와도 같은 명곡의 진한 선률은 조선혁명의 근 100년사의 메아리이다. 귀기울여 들어보면 그 선률에서 마동희동지가 최후의 순간에 심장으로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들려오고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긴 최희숙동지가 불사신처럼 일어서서 웨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참다운 혁명신념은 맹세가 아니라 생활의 매일, 매 시각 자신을 혁명의 요구앞에 세워놓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투철하고 체질화된 일편단심이다.

이런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우쳐주는 가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야말로 혁명가의 본태, 혁명가의 인생관에 대한 교과서적인 명곡이다. 항일혁명렬사들이 사형장에서 부르던 그 비장한 《적기가》처럼 우리들, 김정은동지의 전우들이 최후의 순간에도 《김정은장군 만세!》의 웨침과 함께 소리높이 불러야 할 영생의 혁명가요이다.

《우리 당 령도따라 끝까지 한길가리》

우리에게는 어떤 노래가 필요한가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왜 우리에게는 꽃바람노래가 아니라 백두산칼바람노래가, 명승지타령보다 백두산행군가가 필요하고 행복에 대한 서정가요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혁명가요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가.

《혁명군의 노래》를 총대처럼 사랑하고 《적기가》를 부르며 사형장으로 꼿꼿이 걸어나가던 항일투사들은 우리곁에 없다. 그들의 3세, 4세들이 조선혁명의 주인공이 되였다. 설한풍이 휩쓰는 혈전만리행군길도 걸어보지 못하고 감옥과 단두대도 빨찌산회상기를 통해서만 아는 우리 새 세대들앞에 혁명의 원쑤들도 대를 이어가며 맞서나서고있고 우리의 사회주의 붉은기를 겨눈 고난과 시련의 광풍은 갈수록 더욱 험악해지고있다.

항일혁명의 가장 주되는 인간문제였던 신념문제는 혁명의 세대가 몇번이나 바뀌고 우리앞을 가로막는 난관이 더 엄혹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혁명의 승패와 개별적인간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더더욱 심각하고 절박한 정치적문제, 인간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신념이 허물어지면 인간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 세대들의 사상과 정신에 쉬가 쓸면 혁명은 망하기마련이다. 철창속의 투사들이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주저없이 혀를 물어끊고 그 진한 선혈의 방울방울이 마두산밀림의 거목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로 새겨지던 그때처럼 우리 혁명은 오늘날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어도 끝까지 당을 따를 3대각오로 뼈속까지 철저하게 무장한 참되고 견실한 새 세대 혁명가들을 바라고있다.

이러한 력사적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혁명신념에 대한 노래이다. 이것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만난을 헤치고 노래로 승리해온 우리 혁명의 생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할 새 세대 혁명가들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킬수 있는 새 세기의 혁명가요를 시대는 천만의 식량이나 억대의 황금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이 혁명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훌륭히 대답한것이 바로 명곡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이다.

훌륭한 명곡은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치와도 같다.

지금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그야말로 백두산칼바람처럼 온 나라 방방곡곡을 뒤흔들고있으며 청년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 시대의 명곡으로 되였다. 두편의 명곡의 놀라운 전파력과 감화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이 두편의 명곡을 그 누구보다 청년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였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장에서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수천명 청년전위들의 대합창으로 찌렁찌렁 울려퍼진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꽃바람타령, 날라리노래를 부르며 전세대들의 넋과 유산우에 변태와 향락의 독버섯을 뿌릴 때 우리 청년들은 혁명가요를 부르며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백두산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구로 달려가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만사람을 감복시키는 이런 훌륭한 소행과 위훈들밑에는 반드시 혁명과 인생에 대한 훌륭한 명곡들의 사상정서적힘이 용암처럼 흐르고있다. 현실적으로 가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가 당보에 실린 때로부터 불과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수천명의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해갔다.

지금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재부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이 펄펄 살아숨쉬고 우리 시대의 맥동이 쿵쿵 높뛰는 시대의 명작들, 당의 사상과 혁명의 요구가 민감하고 명백하게 반영되고 인민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명작들이다. 아무리 형식이 특색있어도 인민의 심장을 울릴수 있는 의미깊은 사상이 없는 노래는 죽은 노래나 같고 아무리 사상이 진하다고 해도 인민이 스스로 따라부르지 않는 노래 역시 향기없는 꽃송이나 마찬가지이다.

한편의 노래를 만들어도 사회발전과정의 현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본태적인것을 반영하여야 하며 가사 한글자, 한글자에 사상을 담고 선률 한토막, 한토막에 시대의 정서와 박동을 담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인민이 외면한 노래는 태여나는 순간에 반디불처럼 한번 반짝하고는 영영 사라지고말지만 인민이 심장에 받아들인 노래는 시대의 명곡으로 영생하는 법이다.

오늘의 우리 혁명대오에는 마동희동지와 같은 투철한 혁명가와 함께 기타 하나만 들고도 혁명가요를 만들어낼줄 알고 자기가 지은 노래처럼 《한별 만세!》를 웨치며 절개를 지켜 스스로 죽음을 택할줄 아는 김혁동지와 같은 혁명시인들도 많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과 인민은 마지막 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심신을 다해 혁명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진을 고무추동하는 당의 목소리를 높이 울리는 참된 예술가들을 영웅으로 떠받들어주는것이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을 비롯한 당사상전선의 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혁명과 인생, 혁명과 예술을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시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혁명의 명곡 역시 투철한 혁명신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시대를 들끓게 하는 혁명적명작들을 줄기차게 창조해내고있는 모란봉악단의 놀라운 정진력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지난해 5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작은 육체에 불사조의 넋과도 같은 혁명신념을 심어주시여 시대의 제1나팔수로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만장을 격동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백두산뫼부리와 같은 억척의 신념, 백두산칼바람처럼 진할줄 모르는 정신력은 이 땅의 인간들뿐아니라 예술도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의 상상봉에로 이끌어가고있다.

백두산의 참된 아들이신 그이께서만이 사람들이 스쳐지나던 한그루 구호나무에 혁명가요의 억센 숨결을 부어 영원히 살아숨쉬는 혁명의 거목으로 다시 태여나게 해주실수 있다. 오직 그이께서만이 누구나 례사롭게 대하던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을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주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계승의 대통로로 넓혀주시고 그에 걸맞는 행군가를 인민에게 안겨주실수 있다.

이 두편의 명곡의 가사 한글자, 한글자에 그이께서 어떤 심혈을 기울이시였는지, 선률과 형상의 하나하나의 세부들에 어떻게 품을 들이시였는지 병사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다 모른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들의 실지체험을 통하여 매혹되고 굳게 믿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과 함께 혁명을 할 전우들과 동지들에게 간곡히 이르시는 음성을 이 노래들에서 듣고있다.

❊ ❊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빨찌산가요, 새 세기의 혁명가요들인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진짜매력을 알자면 역시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한다. 우리 원수님께서 백설눈보라를 헤치시던 그 행군길을 따라가며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불러보고 그이께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어깨겯고 사진을 찍으신 백두산마루에 서서 칼바람을 맞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불러보아야 이 두편의 명곡의 진미를 알수 있다.

항일투사들이 《적기가》나 《혁명군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한것은 철창속에서, 설한풍속에서 그 노래들의 진가를 체험했기때문이다. 혁명의 성산에 대한 첫 기념비적예술작품인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주옥같은 시구절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백두산정의 칼바람속에서 태여났다.

뼈저린 체험에 굴절된 명작만이 그 진미를 뼈속깊이 느낄수 있다.

리 경 섭

온 겨레의 이름으로 박근혜일당의 반공화국 미싸일발사소동에 경종을 울린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그리도 악의에 차 헐뜯어대고 우리 로케트발사에 대해 《도발》과 《위협》이라고 그처럼 못되게 걸고들며 청을 돋구어 짖어대던 박근혜와 그 일당이다.

이러한 박근혜일당이 6월 3일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안흥사격장에서 감히 우리 공화국을 직접 조준한 미싸일발사시험놀음을 벌려놓았다.

겁에 질릴대로 질려 우리의 로케트발사 때마다 쉬임없이 비난의 도수를 높여오던 박근혜가 이제는 제년이 직접 사격장에 나타나 미싸일발사시험을 벌리는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해나선것이다.

사거리를 500㎞로 늘인 미싸일발사시험이 크게 성공한것처럼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면서 이제는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타격권안에 넣게 되여 《북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만회할수 있게 되였다고 박근혜가 선창하고 김관진과 한민구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뒤따라 합창해대고있다.

지금까지 미국놈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까지 《도발》과 《위협》이라고 함부로 매도해대던 박근혜와 그 일당은 저들이 이번에 벌린 미싸일발사시험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로, 위협으로 자인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가관은 이번 발사시험이 미국상전의 승인밑에 미국의 미싸일기술로 미군부의 뒤받침을 받으며 벌린 꼭두각시놀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가 기고만장하여 민충이처럼 수치도 모르며 놀아대고 괴뢰정계와 군부의 수장들이 망신감각이 없어진 병자들처럼 히히닥대고있는것이다.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에 체질화되면 백치가 되고 천치가 되여 만사람의 조소거리가 되는법이다.

분명한것은 뒤에서는 상전인 미국이 핵으로, 생화학수단으로 우리를 공갈하고 앞에서는 미국의 충견들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상전이 쥐여준 미싸일로, 세균무기로 우리에게 도전해나서고있는것이다.

태안반도의 안흥사격장에서 이번에 벌린 박근혜와 그 일당의 미싸일발사시험소동은 외세가 쥐여준 총칼로 동족을 겨누고 달려드는 매국배족적인 반역행위의 일면이다.

장구한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는 외세의 침노를 막기 위해 남복을 하고 전장을 누비며 용맹을 떨친 의로운 녀걸들은 있었어도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마폭을 걷어올리는 화냥짓을 일삼고 외세가 쥐여준 총칼을 들고 동족을 해치는 길에 뛰여든 박근혜와 같은 악당년은 없었다.

전쟁은커녕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주제에 미국의 큰 개우리로 락인된 청와대를 차지한 그날부터 미국이 하라는대로 짖어대고 미국이 부추기는대로 동족대결장에 무작정 달려드는 전쟁사냥개가 바로 박근혜이다.

벌어진 사태는 병진로선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인 억제력강화조치가 얼마나 현명하고 정정당당한 조치였는가를 그대로 확증해주고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보유한 핵억제력도, 강위력한 전략로케트도 결코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사는 내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자위적타격수단들의 과녁은 철두철미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고 박근혜와 같은 몇몇 안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다.

일단 선정된 과녁에 대해서는 불바다가 번져지게 할 면적타격에도, 골라가며 소멸할 정밀점타격에도 빈틈없이 준비된 우리의 전략군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보유하고있기에 미국이 강요하려는 핵전쟁이 이 땅에서 터지지 않고있으며 미국본토까지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우리의 전략군이 있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수호되고 온 겨레의 안전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친미에 젖어있고 숭미에 체질화되고 종미에 환장이 되면 갈 곳은 오직 하나 민족반역의 구렁텅이이고 종착점은 개죽음뿐이다.

요즘 남조선항간에서는 박근혜에게 붙은 《친미》라는 악명을 바꾸어놓으면 《미친》이 된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칠 흉심에 사로잡혀있는 박근혜가 사대에 미치고 친미에 미치고 매국에 미친 늙다리 악녀라는 신통한 평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때 애비 박정희가 안흥사격장에 때없이 나타나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유도무기개발에 광기를 부려대던것을 그대로 본따 오늘은 박근혜가 이곳에 머리를 내민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그것은 동족대결을 노린 살인장비개발에 제정신이 없던 박정희가 얼마 못 가서 철알에 숨통이 끊겨 즉사했듯이 박근혜도 유전적인 불운을 제스스로 불러오고있다는것이다.

남을 물어뜯는 미친개는 몽둥이에 맞아 죽고 총탄에 즉사하기마련이다.

입을 놀리면 구린내나는 악담만 쏟아져 나오고 발을 옮기면 동족을 노린 대결마당뿐인 박근혜는 이미 사람가죽을 쓴 미친개로 변한지 오래다.

박근혜의 무모한 반공화국미싸일소동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다.

저지른 죄악의 올가미가 박근혜의 명줄을 시시각각 조이고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취하고있는 정의로운 자위력강화조치 실현의 앞장에 백승만을 알고있는 우리 전략군이 서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불같은 맹세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이 불탄다

평천구역출판물보급소 소장 공화국영웅 김정순동무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은 이렇게 살았다

지난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날 천만군민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숭고한 화폭이 기념촬영장에 펼쳐졌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소리,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드높은 웨침…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으며 천결만결으로 안겨들던 청년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그 어떤 총포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거대한 성벽을 보았다. 수령결사옹위에 청춘의 삶이 있고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의 신념의 웨침을 들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가장 참되고 성스러운 인생관으로 간직된 수령결사옹위정신, 그것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청년강국의 억센 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돌이켜보면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의 단결의 력사,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워온 청년영웅들의 빛나는 투쟁의 력사였다.

《한별 만세!》를 높이 부르며 죽음도 기꺼이 맞받아나갔던 김혁, 차광수, 최창걸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첫세대들을 보라. 그들은 열밤을 새고 수백수천리길을 걸어도 지칠줄 모르는 불같은 정열과 강철같은 투지를 지닌 20대, 3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였다.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바쳐 사수하는 길에서 용맹떨친 7련대장 오중흡동지도 29살 젊은 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던가.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정녕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큰 본분이 어디 있으며 죽어도 잃지 않는 영원한 청춘이 어떤것인가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주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라고 웨치며 수령결사옹위전,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섰던 1950년대의 청년들도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참다운 계승자들이였으니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낳은 600여명 영웅들중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것인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격전장마다에도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해온 전세대 청년영웅들의 위훈의 자욱이 빛나고있으며 오늘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돌격전의 선두에도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체질화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이 서있다.

하다면 어떻게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피줄처럼 꿋꿋이 이어져올수 있었던가.

몇해전 평안북도 동창군의 어느 한 산림보호구역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였다.

그때 바람소리를 내며 무섭게 타번지는 불길속으로 제일 먼저 뛰여든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지도원 김광성동무를 비롯한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이였다.

뜨거운 열풍에 숨이 막히고 세찬 불길이 얼굴이며 손을 사정없이 휩쓸었지만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그들의 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가 있었던것이다.

혁명사적지, 그것은 곧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그것을 지키는것이 수령의 권위와 업적을 결사보위하는것이기에 청년들은 옷을 벗어 거기에 흙을 담아 나무들을 감싸안으며 산불과 맞서싸웠다. 그리하여 혁명사적지와 사적지주변 산림의 나무들을 지켜내고야 말았다.

그후에도 김광성동무와 청년돌격대원들은 혁명사적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들을 스스로 발기하고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3만 6천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사적지주변구역을 수림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혁명의 만년재보를 지켜냈으며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으로 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친 기특한 청년들, 그들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였다.

우리 시대 청년들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들 역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나서자라난 새 세대 청년들이였다.

이 땅에 생을 둔 수천수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부모들이 지어준 옷보다도 나라에서 보내준 교복을 더 많이 입으며 자라난 청년들이였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고마운 그 품, 친부모도 주지 못할 사랑과 정으로 마음속 자고마한 그늘까지도 가시여주는 그 품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긴 청년들이기에 언제나 수령결사옹위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이어놓고 불같은 충정과 의리를 다하여왔던것이다.

어찌 그들뿐이랴.

불길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해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오명혁동무, 철도성 평양철도국 순천철도분국 로동자 김광일동무, 10여년세월 매일같이 만수대언덕을 오르며 변함없는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평양철도종합대학 학생 오혜심동무…

오늘날 수령결사옹위의 거대한 성벽을 이룬 하나하나의 성돌들이 바로 이들처럼 수령의 위대함과 고마움, 귀중함을 인생의 체험으로 간직한 수백만 청년들이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진리로 체득한 청년들이 그 진리를 지켜 청춘을 바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얼마나 자랑찬것인가.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선 우리의 군인들, 저 멀리 북변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청천강전역에서 기적의 열풍을 일으키는 청년돌격대원들, 최첨단돌파전에 앞장선 청년과학자들, 온나라 방방곡곡의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체질화되고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는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선군조선의 힘은 참으로 무진막강하다.

그 어떤 전략무기의 위력에도 비길수 없는 그 힘으로 혁명이 전진하고 강성조선의 휘황한 래일이 다가오고있다.

바로 그 힘을 제일 두려워하는 원쑤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으며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아무리 발악하여도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로 다져진 청년강국의 성새는 억척불변인것이다.

하늘땅이 열백번 바뀌고 고난과 시련의 역풍이 몰아친대도 우리 청년들은 혁명선렬들이 물려준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갈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영광의 길에서 시대가 자랑하고 력사가 추억하는 혁명의 전위투사가 될것이다.

본사기자 승 철 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은 이렇게 살았다

평천구역출판물보급소 소장 공화국영웅 김정순동무

우리 조국의 력사에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로 아로새겨진 지난 천리마시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밑에 이 땅우에 가장 고결한 인간사랑의 룰리와 미덕의 새 경지를 개척하여온 자랑스러운 시대였다.

사경에 처한 한 소년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친 청년대학생들과 태풍에 휘말려 떠내려가던 조난선을 목숨바쳐 구원한 청년들의 소행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당의 부름따라 청년들이 산으로, 바다로, 전야로 달려나가던 가슴벅찬 그 나날에는 20살의 꽃나이처녀가 얼음진 강물속에 뛰여들어 위험에 처한 7명의 애어린 생명들을 구원한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전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의 높은 연단에 오른 사람들가운데는 평천구역출판물보급소 소장 공화국영웅 김정순동무도 있다. 그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20살 꽃나이처녀의 몸으로 강물에 빠진 7명의 녀학생들을 구원하여 온 나라를 격동시켰던 미풍의 주인공이다.

주체51(1962)년 2월 22일 한낮이 되여올무렵 당시 함주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 농장원이였던 김정순동무는 집짐승들의 방목장소를 보아두려고 여위천의 제방뚝을 거닐고있었다.

그때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7명의 나어린 녀학생들이 강복판에 들어섰다가 그만 차디찬 얼음구멍속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을 발견한 순간 김정순동무는 가슴이 철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들이 빠진 곳이 동풍이 조금만 불어도 바다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어오는 물목이였던것이다. 주저할새가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자기는 죽더라도 반드시 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하여 쏜살같이 제방뚝을 달려내려간 김정순동무는 서슴없이 얼음구멍속으로 뛰여들었다.

얼음물이 몸에 와닿는 순간 숨이 막히고 온몸이 뻣뻣해지는 속에서 얼음장을 가까스로 밀어제끼며 아이들에게로 다가간 그는 급한 정황속에서도 나이가 제일 어린 처녀애부터 안아 얼음판우에 밀어올리기 시작하였다. 허나 아이를 올려놓으면 얼음장이 꺼져내리군 하였다.

다시 올려놓으면 또 꺼지고, 그러기를 몇번…

물에 푹 젖은 옷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김정순동무의 온몸을 아래로 잡아당겼고 감각이 없어진 팔과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물가물 흐려지는 의식속에서도 그는 초인간적인 힘을 모아 한명한명 아이들을 얼음장우로 밀어올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지칠대로 지친 김정순동무는 이제는 자신이 얼마만한 시간을 물속에서 싸웠고 몇명의 처녀애들을 건졌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찬 얼음물속에서 한시간동안이나 죽음과 맞받아 싸우며 끌내는 일곱명모두를 구원해내고야말았다. 동해기슭의 한 나어린 처녀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순동무의 소행이 실린 《함남일보》의 기사를 보시고 자, 보시오, 이 처녀가 아니였더라면 7명이나 되는 녀학생들이 어떻게 될번 했소, 장하오, 이 동무야말로 영웅이요라고 하시며 온 나라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김정순동무에게 친히 자신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와 공화국영웅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김정순동무와 같은 천리마시대의 청년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귀한 넋은 오늘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고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환자의 친누이가 되여

황해북도인민병원 간호원 송윤희동무

우리의 청년들속에는 천리마시대의 의료일군들처럼 숭고한 희생정신과 뜨거운 인간사랑으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굳건히 지켜선 새 세대 의료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자치료라고 하면 의술과 약을 먼저 꼽는다.

그러나 황해북도인민병원 사지외과 간호원 송윤희동무에게 있어서 지난 10년간은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명약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병원 사지외과로 작업도중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한 한 화상환자가 실려들어왔다.

당시 환자는 전신 70%의 화상으로 의식이 없었고 합병증까지 겹친 상태여서 소생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과에서는 그 중환자에 대한 간호를 책임성높은 송윤희동무에게 맡기였다. 간호원생활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 그가 그처럼 중한 환자를 맡아보기는 처음이였다.

송윤희동무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환자간호에 전심하였다.

화상환자이다보니 그 어느 환자보다 간호원의 손길이 필요하였다. 욕창방지를 위해 한 시간에 한번씩 연약한 두손으로 환자를 받쳐들고 밤을 새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어떤 때는 며칠밤을 꼬박 밝히다나니 온몸이 땀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을 찾아 병원으로 왔던 어머니는 수척해진 송윤희동무의 얼굴을 보고 몹시 놀라는것이였다.

《아니, 그러다 네가 앓겠구나.》

《난 환자가 소생할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어요.》

송윤희동무는 어머니가 들고온 닭곰도 환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었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긴장한 수술이 진행되던 도중 예견치 못했던 심한 출혈로 환자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급해지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송윤희동무는 즉시 수술장으로 달려갔다.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안의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꽉 메우고있었다.

그가 먼저 팔을 걷어올리며 수술장으로 들어서는데 사지외과 과장과 환자의 어머니가 그를 막아나섰다. 환자를 간호하느라 며칠밤을 꼬박 밝히고 금방 피부를 떼주고 나왔는데 또 어떻게 피를 뽑아주겠는가고 하면서 그를 한사코 막아나섰지만 누구도 그의 결심을 꺾을수 없었다.

수혈을 마치고 그가 수술장을 나서는데 문밖에서 기다리고있던 환자의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인 눈길로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친형제도 주지 못한 사랑을 우리 간호원이 주었다며 송윤희동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수술장앞에 모여선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이 아니였더라면 내 아들이 어떻게 소생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절을 하였다.

송윤희동무는 그후에도 의료일군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환자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였다.

뜨거운 정성속에 완쾌되여 퇴원하는 날 환자는 《누나!》 하며 송윤희동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바로 그 순간 송윤희동무는 심장이 후두둑 뛰는것을 느끼였다.

그것은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친혈육이 되여야 하며 정성이야말로 의료일군들이 지녀야 할 미덕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새기는 순간이였다.

그후 송윤희동무의 날과 달은 환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순간순간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송윤희동무는 말하였다.

천리마시대의 의료일군들이 지니였던 참된 인간애, 미덕의 전통을 더욱 억세게 지켜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홍 성 철

청년대학생들속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어주고있다.
— 청진의학대학에서 — 본사기자 찍음

보천보훼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 시작

보천보훼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가 시작되였다.

평양에서 4일부터 진행되는 경기에는 11개 남자축구팀과 6개의 녀자축구팀들이 참가하고있다.

남자경기는 두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매 조에서 점수가 높은 두개 팀이 올라와 대각경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긴 팀들이 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나머지 두 팀은 3, 4등을 가르는 경기를 하고 이외 팀들은 직선경기를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녀자경기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벌어진다.

첫날경기는 남자 4.25팀과 소백수팀, 압록강팀과 경공업성팀, 녀자 압록강팀과 평양팀사이에 있었다.

선수들은 공격을 위주로 하면서 여러가지 전술과 공다루기기술을 활용하여 득점기회를 마련하는 등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나갔다.

남자경기는 25일까지, 녀자경기는 26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스웨리예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칸러브 보토르켈 주조 스웨리예왕국 특명전권대사가 대사관에서 4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응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스웨리예왕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까를 구스타프국왕폐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스웨리예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말레이시아에 가는 우리 나라 대표단 출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단 고위일군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말레이시아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김룡권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로간부대표단이 떠나갔다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박종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로간부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

물절약형농법도입에 주되는 힘을

농업과학원에서

사회주의협동벌이 들끓고 있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는 올해벽두부터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뛰여든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사색과 탐구, 헌신의 자욱은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선 지금 사회주의대지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

170여건의 기술을 연 63만여정보에

이것은 농업과학원에서 올해 나라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운 과학기술성과도입목표이다.

가장 주되는 목표는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물절약형농법의 도입이다.

능력있는 여러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농업성에 파견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년초부터 농업성과의 긴밀한 편계밀에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벼모기르기를 영양단지모를 위주로 진행하며 마른논써레치기, 포화수식 및 간단물대기방법 등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있다. 농업부문 일군들을 대상으로 하여 올해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벼모기르기와 모판관리, 모내기와 논벼비배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가지고 실속있는 강의도 진행하였다.

논면적이 비교적 많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주요 시, 군들에는 과학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벼씨뿌리기와 모기르기, 병해충예찰 및 구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는 해당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 맞게 농작물생육예보사업도 보다 더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상수문국과의 협동작전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면서 현재까지 가물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10개호의 《농작물생육예보》를 농업지도기관들과 생산단위들에 통보하였다.

농업과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에서는 밀보리잎덧비료주기, 가물조건에서의 발벼재배기술, 논에서의 이랑재배에 의한 물절약기술, 영양알모와 영양단지모에 의한 벼모기르기방법,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벼모기르기에 효과있는 후민산소다의 적용, 알곡 대 알곡위주의 겹두벌, 겹세벌농사, 뒤그루콩의 좁은 이랑재배기술 등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많은 면적에 도입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농업화학화연구소의 성과이다.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치영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벼모판종합영양제의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올해농사에 필요한 전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농업생물학연구소와 식물보호학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실리가 큰 농작물종자처리제 《청계65》와 농약적심제를 현장에 적극 도입해나가고있다.

염피해를 받고있는 지역들에서 논벼두둑재배방법을 비롯하여 논벼재배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우는데도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올해에 내세운 목표를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자는것이 농업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결심이다. 현재 벼연구소, 토양학연구소, 농업화학화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전문화연구소들과 각 도농업과학분원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관록있는 110여명의 과학자들이 그 실천을 위하여 현지에서 활동하고있다.

새 기술탐구를 목적지향성있게

농업과학원에서는 올해와 같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 대처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도 목적지향성있게 탐구하고 도입해나가고있다.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이동통신망용홈페지 《열풍》을 통한 농작물생육예보봉사를 새로 시작하였다.

예보봉사를 콤퓨터망과 함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봉사의 신속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예보봉사는 제8호부터 시작되였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실리있는 물절약기술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처장 박광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농업과학원에서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세계적으로 도입되고있는 물절약기술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쓰이고있는 가물방지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냄으로써 수천정보에 도입하였다.

특색있는것은 논수위측정기와 이동식벼겨탄화기이다. 논수위측정기를 도입하면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정확히 땅속 얼마만 한 깊이에 물이 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과학적으로 물대기를 할수 있다. 물흡수제로 쓸수 있는 탄화벼겨를 만들수 있는 이동식벼겨탄화기도 매우 실리적이라고 한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논수위측정기와 이동식벼겨탄화기견본을 제작하여 이미 각 도농업과학분원들에 기술자료와 함께 배포하였다.

작물재배연구소, 토양학연구소, 농업화학화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에서는 될수록 적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짓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새겨가는 농업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은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안받침하는 밑불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발관수용물메뽐프를 발명하기까지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과학자들

최근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에서는 발관수용물메뽐프를 만들어내놓았다.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논밭들에 관수를 실현할수 있는 이 물메뽐프는 실장 박치훈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발명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몇해전 박치훈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위하여 은파군 초구리에 나갔을 때였다.

과학자들에게 이곳 일군들은 농사에서 제기되는 한가지 애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맡은 연구과제와는 별로 련관이 없었고 또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다.

일군들을 따라 과학자들이 간 곳은 농장의 어느 한 남새밭이였다.

여러날째 계속되는 가물로 밭에 심은 남새가 말라가고있었다. 그런데 포전옆으로 지나간 물길로는 물이 흐르고있었다. 긴장한 전기사정때문에 양수기를 돌리지 못하여 얼마 높지도 않은 곳에 있는 밭에 물을 대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준다고 해도 그 넓은 밭을 다 적실수는 없었다.

긴 설명이 없이도 그들이 안타까와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수 있었다.

얼마후 열공학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리고 류체기계연구집단에 능력이 큰 물메뽐프를 만들데 대한 과업이 맡겨졌다.

물메뽐프는 수원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고 흘러내리는 물의 에네르기를 리용하여 그보다 적은 량의 물을 수원보다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뽐프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나온 물메뽐프는 발관수용으로 그대로 리용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랐다.

박치훈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선행연구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과정에 어디서나 만들기 쉽게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운영하기 편리한 물메뽐프를 개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에 맞는 발관수용물메뽐프의 총체적인 구조형식을 확정하였으며 설계와 제작 및 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과학자들이 착상한 제안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전기가 없이 어떻게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릴수 있는가고 하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을 전적으로 믿고 떠밀어준것은 군당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은파군의 일군들이였다.

이들의 지지방조와 은파군농기계작업소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발관수용물메뽐프가 제작되고 시험관수가 진행되였다. 물길과의 락차고가 1.5m정도 되는 낮은 곳에 설치한 물메뽐프에 의하여 물길보다 3~5m나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와 남새밭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환성을 올리였다. 그 물량은 하루에 500~700㎥나 되였다.

1.5m이상의 락차고를 가진 물원천이 있는 모든 지역들에 도입할수 있는 발관수용물메뽐프는 이렇게 발명되였다. 농사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발명품이 나온것은 물론 좋은 일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를 위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줄 아는 소박하고 미더운 과학자들을 또 알게 된것이 우리는 더 기뻤다.

본사기자

현실에서 주목되고있는 연구성과들

유기질발효퇴비

유기질비료의 리용효과성을 훨씬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였다.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그대로 토양에 내는것이 아니라 젖산, 효모균으로 발효시켜 리용하는것이다.

유기질비료안에서 젖산, 효모균은 여러가지 물질들을 발효분해시키는 유용미생물들과 호상 분해산물을 기질로 하여 공존한다. 그 과정에 미생물들의 역할이 훨씬 높아짐으로써 비료속의 질소, 린, 칼리움 등 주요영양원소들과 기타 영양성분들을 식물이 허실없이 흡수할수 있게 된다. 현실에 도입해본 결과 유기질비료의 리용효과가 3배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유기질발효퇴비는 또한 토양을 개량, 보호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줄이며 화학비료의 리용률도 2배로 높일수 있게 한다.

도입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식물의 싹트기와 뿌리발육이 촉진되여 생육기일이 짧아졌으며 소출이 훨씬 높아졌다. 알곡작물에서는 120~130%, 감자에서는 130~150%, 남새에서는 150~180%의 증수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뇨소처리유기광물질비료

뇨소처리유기광물질비료는 질량비률로 뇨소 1에 수분이 20~25%정도인 니탄 또는 부식토를 2~3의 비률로 섞어쌓고 비닐박막을 씌워 20~22℃정도의 온도에서 7~10일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뇨소비료의 부식산암모니움화에 의해 농작물의 질소흡수률이 2배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작물의 소출도 높아지는데 비료성분량이 같은 조건에서도 뇨소처리유기광물질비료를 정보당 0.5t 주면 알곡증수량은 0.8~1t으로서 질소비료(류안환산) 200㎏을 더 친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종합토양관리농기계

이 기계로는 밭갈이와 동시에 이랑짓기작업을 수행할수 있다. 논갈이때에도 3개의 이랑을 지으면서 흙밥뒤엎기를 하고 뒤따르는 번지에 의해 수평고루기를 하며 물논써레때에는 뒤쪽의 갈이보습만 떼여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종합토양관리농기계에는 작업시에 들춤작용체가 받는 부하를 최소로 하는 최소부하배치방안을 비롯하여 토양을 갈아엎는데 합리적인 부분품들의 최량설계방안이 반영되였다. 그 작용특성을 관찰한 결과 생산성은 교대당 3.5~4정보, 연유소비는 정보당 6~8㎏, 최대흙덩이크기는 8~12㎝, 갈이깊이는 20㎝, 작업너비는 2.1m정도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에 서로의 힘을 합쳐간다.
—원산농업종합대학 생물공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일군들의 능력이자 모내기실적이다

은률군 삼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은률군 삼리협동농장의 논면적은 군안의 다른 몇개 농장들의 논면적을 합친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모내기를 제철에 보장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물부족현상이 지난해보다 더한 올해의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호미로 논바닥을 파고 벼영양단지모를 하나하나 심어가지고서는 온 농장이 달라붙어도 모내기를 끝내는데 석달이상이 걸려야 하였다.

게다가 높아진 대동강물의 염도가 모판의 모들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어 모내는 시기가 많이 늦어진것이 또한 문제였다.

모내는 시기를 보장하자면 물원천과 로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하였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관리위원장 송현일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군의 한 일군이 하는 이야기에서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착상을 얻게 되였다.

마른논상태에서 모를 내야 하는 조건에서 영양단지모의 넓이만 한 홈을 낼수 있는 《보습》을 만들면 모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수 있지 않겠는가.

농장일군들은 시험적으로 그런 농기계를 만들어보기로 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마른써레를 쳐 수평고루기가 된 논에서 여러 《보습》날들이 골을 째고 이랑을 지으면서 모가 놓일 자리를 잡아나가는 모습은 정말 볼만 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모두가 신심을 가지고 농기계를 과학기술적으로 더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보습》날사이간격을 소식재배의 요구에 맞게 정하였으며 그 수도 십여개로 늘이였다. 농기계량옆에는 표식기를 설치하여 돌아올 때 뜨락또르가 정확한 작업위치를 잡을수 있게 하였다.

농장일군들이 농기계제작에서 특별히 관심을 돌린것은 《보습》날의 높이였다. 그것은 이 높이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모내기가 질적으로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기때문이였다.

면밀한 타산밑에 찾아낸것이 바로 15㎝의 날높이였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농기계로 시험적으로 모내기를 해보니 그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모내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였다. 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기계로 낸 골을 따라 규정된 간격을 보장하면서 벼영양단지모를 놓아준 다음 포전에 물만 대면 되였다.

이렇게 되니 모내기속도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다. 따져보니 로력자 1인당 7~8배의 능률이 났다.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게 되였다. 이 방법으로 하면 골을 따라 들어온 물에 풀려 이랑의 흙이 주저앉으면서 자연히 모뿌리를 덮어주게 된다. 그러니 모를 눌러심어 뿌리가 상하는 현상도 없으며 모가 깊지도 얕지도 않게 심어지기때문에 이삭아지들이 많이 나올수 있는 조건이 지어지게 되는것이다.

골을 째주는 과정에 살초제를 친것에 못지 않은 김잡이효과를 보는것 또한 좋은 점의 하나였다.

이렇게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묘술도 일군들의 머리속에서 나와야 한다.

가혹한 올해의 농사조건은 일군들의 당성과 함께 실무능력을 평가하게 될것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이 농장의 일군들처럼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줄 아는 능력가, 실천가가 됨으로써 뜻깊은 올해의 농사에서 기어이 훌륭한 결실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강철웅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선군청년전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

기사 《로동당의 딸—강선땅의 〈처녀어머니〉》에 대한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의 리상과 포부, 열정과 기백은 혁명의 요구, 조국의 전진과 결부되여야만 참되고 아름다운것으로 빛날수 있으며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주고 꽃피워주는것이 바로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의 임무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강선땅의 《처녀어머니》 장정화동무에 대한 기사는 온 나라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고결한 성품, 뜨거운 인정미

나는 당보에 실린 기사 《로동당의 딸—강선땅의 〈처녀어머니〉》를 거듭 읽으면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스스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한둘도 아니고 7명씩이나 맡아키우고있는 장정화동무야말로 고결한 정신세계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도 낳아키워보지 못한 처녀로서 어머니의 정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헌신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장정화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은 우리 공장 청년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공장에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청년들을 더 잘 키우고 뜨겁게 보살펴주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의 응당한 본분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장당조직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짜고드는 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해나가겠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공장의 실정에 맞게 잘 짜고들면서 청년동맹조직이 활력있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의 청년들속에서 장정화동무와 같은 고결한 성품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미풍선구자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과학기술인재형의 청년들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신의주은하타올공장 초급당비서 조희영

청년미풍의 화원을 가꾸는 밑거름으로

격정없이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었다. 20살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7명의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동무에 대한 기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것이 미덕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그의 소행을 알게 될수록 이런 미더운 진주보석과도 같은 청년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우리 탄광에도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못다한 일을 애국으로 봉창하기 위해 리수복청년돌격대를 뭇고 탄전에서 일하고있는 청년들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수십명의 청년들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오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탄광안의 청년들모두를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청년영웅들로 억세게 키우겠다. 청년미풍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밑거름이 되겠다.

덕천탄광 초급당비서 손영주

의무이기 전에 실천이여야 한다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젊은 시절에 청년사업을 하다가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당일군으로 성장한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장정화동무의 소행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온 나라의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닮으려는 이 나라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낳은 또 하나의 장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농장의 래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는것만큼 그들을 장정화동무와 같이 고결한 정신세계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참되고 순결한 인간들로 키우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우리 당일군들의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이며 량심이다.

우리 당일군들이 청년들을 참된 인간들로 키우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며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줄기차게 실천해나갈 때 장정화동무와 같은 청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청년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청년동맹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겠다.

늘 청년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속에서 맺힌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고 그들이 활력과 패기,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적극 이끌어주겠다.

그리하여 청년들속에서 장정화동무와 같은 미풍선구자들이 수많이 태여나게 하여 청년강국인 우리 조국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장식해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은천군 량담농장 초급당비서 김종운

영원한 인생의 분공으로 여기고

연산군 연산고급중학교 청년동맹책임지도원 최명철동무는 장정화동무를 소개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7명의 아이들을 맡아키우는것을 스스로 자기 인생의 분공으로 받아안고 그들을 위해 뜨거운 정을 쏟아붓고있는 장정화동무의 정신세계야말로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어쩌면 평범한 처녀가 그런 정신세계를 지닐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천리마가 나래친 강선땅에서 자라면서 학교과정에 교양을 잘 받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세계관형성에서 중요한 단계인 고급중학교시절에 형성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고급중학교의 청년동맹일군들의 임무가 자못 중요하다.

장정화동무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나는 학생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자신에게 맡겨진 영원한 인생의 분공으로 여기고 그들을 더 잘 교양하기 위해 분발하겠다.

방법론을 부단히 연구하여 학생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어릴 때부터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들줄 알고 집단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례의도덕에 밝은 청년전위들로 믿음직하게 키우겠다.》

강계시 두흥남새전문협동농장 2중모범청년분조 초급단체위원장 홍광일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장정화동무의 소행은 우리 청년분조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 사회와 집단에 유익한 일을 하는것을 스스로 자기의 분공으로 여기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운 장정화동무처럼 산다는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본다.

나는 장정화동무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우리 청년분조원들모두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고결한 미덕을 지닌 참된 청년들로 자라나도록 하겠다.

나는 우리 청년분조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우리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참다운 인간들로 키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설 때마다 앞장에서 청년동맹원들을 이끌어나가며 그들의 취미와 성격, 수준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잘 짜고들어 그들이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본사기자 리종석

온 나라 인민의 축복을 받는 장정화동무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미국의 천인공노할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단죄한다

조 선 중 앙 통 신 사 고 발 장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탄저균으로 세균전실험을 암암리에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평화애호인민들이 이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고 미국의 극히 위험천만한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남조선에 들여온데 대해 그 무슨 《기술적오유》로 무마시키는 한편 아무런 피해도 없는듯이 여론을 내돌려 저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책동하고있다.

지어 《북의 탄저균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꿰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도발이며 조선반도에 생화학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추호도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1

미국이 이번에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탄저균실험을 감행한것은 조선인민을 노린 반인륜적인 특급범죄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명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탄저균은 생물무기가운데서도 그 살상력이 95%에 달하는 위험천만한 살인무기이다.

미국의 워싱톤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는 2002년 4월 30일에 발표한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력분석연구보고서에서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에 의한 한차례의 생물무기공격이 진행되는 경우 핵공격으로 인한 피해보다 10배나 더 되는 100만명이 목숨을 잃을수 있다고 까밝혔다.

탄저균은 그 특성으로 하여 그 어느 병원체보다 더 큰 인명피해와 환경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크기가 수㎛에 불과하고 포자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이한 온도와 건조에 견딜힘이 강하며 사막에서도 수개월 혹은 수십년동안 생존하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인류에게 끼치는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1942년 영국이 스코틀랜드해안의 한 섬에서 탄저균폭탄시험을 진행한 후 동물이 살지 못하고 1945년 이란에서 탄저병으로 100만마리의 양이 무더기로 쓰러진것은 탄저균의 살상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탄저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미국의 데트리크에 있는 기본건물은 1971년부터 비여있다. 건물에 대한 소독이 수십번 진행되였지만 건물벽에 탄저균포자들이 보존되여있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매우 큰 위험을 가져올수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현지주민들은 그곳을 죽음의 요새로 부르고있다.

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인류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는 탄저균을 남조선에 비밀리에 끌어들여 실험한것은 더 말할것없이 우리 민족말살을 노린 극악한 살인범죄이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이번에 들여온 탄저균분말 10㎏을 인구가 밀집되여있는 서울시에서 직경 30㎞내에 살포하는 경우 최고 9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게 된다고 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탄저균을 살아있는채로 날라왔다는것이다.

탄저균은 전염성이 매우 크므로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그것이 옮겨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죽은 상태에서 운반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륙과 대양을 넘어 남조선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이민것은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는 살인행위이다.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한 지맥으로 이어진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탄저균의 살상률을 추정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세균전 제1위험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세계의 미군기지들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오산과 통산, 평택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에 연구소 등 관련시설들을 설치하고 실험을 감행하여왔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미군이 남조선피뢰들에게 이에 대해 전혀 통보조차 하지 않고 극비밀리에 전개하였으므로 탄저균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한번에 어느정도 반입되였으며 그 회수가 얼마인지 전혀 알수 없다.

미군이 연구소들을 완전격폐시켰으므로 실험실의 멸균상태와 탄저균이 어떻게 악용되고있는지는 더더욱 알수 없다고 한다.

지금 미국은 흑막을 가리우기 위해 탄저균이 《새 진단법개발을 위한 실험용》이였으며 이미 《완전폐기처분》되였다고 교활하게 번명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방성으로부터 4월말경에 넘겨받아 5월 21일부터 실험에 착수하였으나 근 1주일이 지나서야 그 진상을 공개한것, 구체적인 탄저균종류와 실험계획을 남조선당국에 통보하지 않은것, 외부로부터 남조선에로 위험물질을 끌어들일 때 저들에게 유리하게 질서를 세우고 미군에 전해지는 군사화물들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수 없게 한것, 실험흔적을 없애고 세균무기전문요원들을 미국본토로 빼돌린것은 미국의 탄저균실험의 범죄적성격과 그 엄중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남조선각계는 미군이 비밀리에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실험을 해온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군기지에 비밀리에 반입한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우리 국민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몰아넣은 불법행위가 아닐수 없다. 》, 《세균전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준비하고있다. 우리는 오바마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한다. 》,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남조선의 진보련대, 록색련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미국대사관앞과 오산, 통산 등 미군기지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항의투쟁을 전개하고있다.

《한겨레》, 《자주시보》, 《민중의 소리》, 《통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도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하고있는 탄저균실험의 흑막을 까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족일보》는 5월 29일 《미국의 위험천만한 탄저균생화학전쟁기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땅은 미군의 전쟁마당이나 생화학실험장이 아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목숨을 걸고 탄저균생화학전을 벌리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오산군사기지에서 미군이 감행한 탄저균실험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조선민족말살을 노리고 감행해온 생화학전의 연장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조선반도를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 여기고 천인공노할 세균전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방장관이였던 죠지 마샬은 1950년 10월 27일 세균무기개발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951년 12월 31일에 그 후임으로 부임된 로버트는 세균무기를 실전에 투입할 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미공군참모부는 실전에 사용된적이 없는 강력한 생화학공격무기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세균전연구진과 군수기업체에 세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살포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게 하였다.

1952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균전을 감행하였으며 이해 1월초부터 3월까지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169개 지역에 연804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도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다.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생화학전으로 하여 조선전쟁 전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주민은 123만여명에 달한다.

미국의 로골적인 세균전과 화학전은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가장 큰 범죄이며 미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규모적으로 감행된 민족말살행위이다.

정전협정조인후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생화학전에 계속 매달려 범죄에 범죄를 덧쌓고있다.

1976년에 일본의 가나가와현에 주둔하고있는 미육군세균무기연구소 406부대소속 미생물연구소 분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치사률이 높은 악성전염병인 류행성출혈열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하면서 그 파급적효과를 검증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생화학무기를 반입, 저축하는 한편 그것을 우리측 지역과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실지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960년대말 비밀작전계획 《식물통제계획 1968》을 작성한 남조선강점 미군은 피뢰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155mile전역에 8만L에 달하는 고엽제를 대량살포하여 비무장지대를 독해물로 오염시켰다.

고엽제살포시 2만 6,000여명의 피뢰군사병들에게 맨손으로 고엽제를 철갑모에 담아 뿌리게 하여 그들중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1974년말부터 독해물인 《RH-787》을 《신종취약》이라는 상표를 달아 남조선에 끌어들여 무고한 주민 1,000여명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면서 그 효률성을 측정하는 천인공노할 살인만행을 저질렀다.

1985년부터 1989년사이에 남조선의 40여개 기지들에 《악마의 무기》로 소문난 2원화학무기를 끌어들이였다.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 9518》에 화학전훈련계획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2사단과 미19전구지원사령부산하에 4개의 미륙군 화학부대들을 새로 편성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부대들에 탄저균예방약젠을 접종하고 미국대사관 가족들에게까지 방독면을 공급하였다.

2011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기간에 각종 생화학전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렸으며 이때부터 피뢰들과 생화학전을 벌리기 위한 《련합생물방어연습》을 해마다 강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미국이 각종 핵 및 생화학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여 제 마음대로 인체실험을 감행하는 세계최악의 식민지, 세계최대의 생화학무기고로 전락되였다.

조선반도에서 생화학전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려는 미국의 도발적책동에 의해 우리 민족과 조국강토에는 보다 엄중한 위험이 시시각각 조성되고있다.

2

미국이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탄저균실험은 백악관의 세계제패야망에 따라 추진되는 특대형전쟁범죄이다.

미국은 이번에 남조선의 오산뿐아니라 미국의 메릴랜드, 텍사스, 위스콘신, 델라웨어, 뉴져시, 테네시,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지에 있는 수십개의 연구소들과 오스트랄리아 등에도 살아있는 탄저균표본들을 넘겨주었다.

1942년에 설립된 후 70년이상 생화학무기실험을 해온 미군연구소가 미국각지에 있는 연구소들과 세계 여러 지역에 탄저균을 배달한것은 인류에 대한 또 하나의 살인범죄이다.

미국에 있어서 생화학전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군사작전의 하나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연구와 생산에 막대한 힘을 넣고있다.

1900년에 필리핀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페스트균주입 등으로 인체실험을 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부터 미행정부의 승인과 미군의 주관하에 군사적인 실험들을 정상화하였다.

1925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조인을 거부하였으며 1949년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의정서의 미국회상정을 중지시키고 해마다 세균무기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하였다.

1953년 트루맨이 만일 태평양전쟁이 1945년 8월에 끝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생물,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을것이라고 한것은 미국의 생화학무기개발의 범죄사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생화학전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전쟁방법으로 선택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생물무기개발문서들과 그 작성에 인입되였던 전범자들을 장악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미국은 저들의 비밀기관들과 군부에 대량살륙무기개발분야의 연구사업을 진행한 도이췰란드의 생화학학자들을 인입할데 대한 과업을 주고 탄저균전문가들을 찾아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악명높은 일본군 731부대의 연구자료들을 걸어쥐는데 달라붙었으며 1947년에는 이 부대의 세균전, 화학전전문가들과 생체실험결과를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극악한 전범자인 부대장 등 살인마들을 도쿄전범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비밀협약을 체결하였다.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731부대 전범자들이 미군의 세균무기연구에 참가하였으며 미국의 식인종들은 일본이 넘겨준 자료에 기초하여 세균무기들을 더욱 보충하고 1949년까지 생물전을 비상작전계획으로 수립하였다.

조선전쟁후 미국은 생화학무기체계를 백악관의 정치, 군사적리익의 견지에서 완비하여야 하며 그것이 국제적인 무기통제체계의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집권자들의 패권적견해에 따라 더욱 본격적으로 구축하고있다.

1980년대 중반기까지 127개의 실험실에서 연구가 진행되였으며 케네디와 레간 등 대통령들에 의해 생물무기의 개발예산이 대폭 증가되였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인 람스펠드와 체이니, 울포위쯔는 《유일초대국》의 세계제패를 주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교리를 작성하면서 《생물무기를 유익한 정치적수단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 》라고 쪼아박았다.

1997년에 미중앙정보국은 《클리어 비전》이라는 작전명칭하에 생물무기를 운반하고 가장 효률적으로 전파할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성능시험까지 마쳤다.

부쉬행정부는 생물무기금지조약파 화학무기금지조약을 비롯한 국제적인 조약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는 등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련발하여 생화학전쟁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야망을 집중적으로 드러내였다.

국제적으로 무려 6년반기간에 걸쳐 작성된 생물무기금지조약의 의정서초안을 부정하면서 그 리유로 초안이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를 검증하는데 불충분하다, 이에 동의하는 경우 미국제약 및 생물기술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미국의 생물무기기술이 루출될수 있다고 력설하였다.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대해서도 부당한 구실을 내대면서 그 리행이 어려울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국제조약 등 모든것이 미국의 척도에 따라 채택발효되여야 하며 백악관의 정책실현에 저애로 되는 모든것은 있을수 없다는 미국식사고방식,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또한 탄저균, 페스트균 등 인체에 치명적영향을 주는 세균들을 다루는 연구시설들을 자국내의 30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적대국가들의 《생화학전》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미국회가 60억US$를 할당하였다.

미국이 내온 미해병대의 즉응부대인 《씨바우》는 본질상 백악관의 지령에 따라 생화학전정도발을 위해 세계의 그 어디든 48시간이내에 출동할수 있게 준비된 특수무력이며 전쟁부대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핵 및 생화학무기분야에서 독점적지위를 계속 견지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생화학무기는 반인륜적인 살인무기인것으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그 개발과 생산 및 저축이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것을 무시하고 생화학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침략적 목적실현에 서슴없이 리용하고있다.

오늘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있다. 현재 생물무기개발에 종사하는 회사만 하여도 400여개나 된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가질병통제연구쎈터는 세계최대규모의 국가급 비루스저장 및 과학연구쎈터이다.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미국균종보관쎈터에는 2,500종이상의 동식물비루스가 보관되여있다.

인류의 운명을 심히 위협하는 각종 비루스들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목적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든 생물무기이며 살인무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무력에 의한 대량살륙을 위해 핵무기를 만들어낸 미국이 오늘 또다시 은폐된 방법으로 대량적인 인간살륙을 목적으로 생물무기들을 개발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생화학무기개발은 그 사용을 전제로 한것이며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생화학무기개발계획은 명백히 공격적 성격을 띠고있다. 이미 알려진 왁찐과 항생제에 끄떡없는 균주도 포함하여 탄저균을 비롯한 세균들의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데로 추진되고있으며 실험 및 살포를 통하여 그 살상력을 확증하고있다.

미국이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한 지역은 순식간에 죽음의 지대로 전변되고있다. 웰남전쟁기간 미국이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 뿌린 각종 독성화학물질에 의해 210만~48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웰남전쟁시기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무장간섭에 5만명이상의 병력과 1,500대의 비행기를 비롯한 막대한 무력을 동원하면서 화학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미행정부의 비준과 중앙정보국의 관여하에 미군이 라오스와 웰남북부에서 20여차에 걸쳐 자린독가스를 사용하였다.

미국에 의해 웰남전쟁에 끌려갔던 남조선피뢰군 1만여명이 미군의 화학무기사용후파로 죽었으며 수만명에 달하는 사병들이 각이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미군은 1954~1973년기간에 《와이트코트작전》으로 불리운 비밀작전에 따라 수백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세균을 리용한 인체실험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생화학실험은 미국본토와 중국 대북, 영국과 카나다 등 세계의 여러곳에서 감행되였다.

미국이 21세기를 전후하여 감행한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생화학무기사용에 의한 무차별적인 인간살륙전쟁이며 환경파괴전쟁이다.

미국의 《반테로전》은 《생화학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이다.

《대량살륙무기위협》, 《생화학위협》설은 미국이 주권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며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라크침공에 앞서 미국은 《이라크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가 있다. 무법자들에게 대량살륙무기를 말길수 없다.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고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이라크에 도합 5,000t의 화학무기를 만들수 있는 재료와 3만발이상의 화학무기용탄두가 있을 의혹이 있다고 하는 등 이라크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237회에 걸쳐 거짓선전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그 어떤 대량살륙무기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수리아정부의 《화학무기사용》설을 내돌리며 어떻게 해서나 수리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의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정치, 군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할 목적으로 그 무슨 《위협》설을 증폭시키고있다.

지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이 직면할 가장 무서운 위협은 북의 핵 및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싸일이므로 그에 대처할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고 력설하고있다.

미국방성과 피뢰국방부는 《북의 생물무기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5개년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악명높은 생물무기개발기지인 미륙군감염연구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생물무기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하고있다.

일본의 오끼나와에 이페리트와 자린가스를 비롯한 1만 3,000여t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저장한 미국이 그것을 우리에 대한 《억제수단》이라고 떠벌이고있다.

미국의 《북핵 및 생화학위협》설은 미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수를 일층 강화하기 위한 주패장이며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지레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우리의 무역거래전반에 제동을 걸고있으며 국회는 이미전에 《북조선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법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국방정책재검토보고서와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미일남조선사이의 외무 및 국방장관회의들에서는 《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책정하고있다.

《북의 핵 및 생화학무기, 미싸일사용징후》에 대한 주관적판단에 따라 첨단전쟁장비들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을 만들어냈으며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전쟁계획들을 수정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핵 및 인권》소동에서 쓰디쓴 참패를 거듭 당하고있는 미국이 《생화학위협》설을 증폭시켜 기어이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동북아시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지지점을 마련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생화학위협》을 요란하게 떠드는데는 그것을 구실로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위력한 방법인 생화학전을 합법화하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인류에게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 ※

오늘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인권말살행위이며 인류가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특급범죄이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벌리는 전쟁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것은 범죄중의 가장 큰 특급범죄이며 오늘뿐아니라 영원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대형의 인권침해행위이다.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보유, 전파의 진범인이며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법도 세계여론도 안중에 없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대한 멸살책동을 서슴지 않는 악의 제국이며 생화학전범자, 인권유린파 침해의 대명사이다.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전쟁규범에는 세균무기, 유독성화학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있다.

미국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침략과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우리는 미국이 《핵 및 생화학위협》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이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4일
평 양

미제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선 박근혜패당에게 민족의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남 조 선 인 권 대 책 협 회 대 변 인 담 화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미국은 극히 위험천만한 살인생물무기인 탄저균을 꺼리낌없이 끌어들이면서도 피뢰들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항의가 비발치자 《완전폐기처분》이니, 《인명피해는 없을것》이니 뭐니 하며 범죄의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쓸개빠진 박근혜패당은 《감염환자가 없다. 》느니, 《미국방장관이 공식 사과하였다. 》느니 하며 미국상전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극구 비호두둔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더욱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피뢰패당이 《북의 탄저균공격대응을 위한 정당방위》요, 《북의 생물무기위협》이요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동족을 걸고 미국의 치떨리는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비호두둔하는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망동을 우리 민족의 생명권을 미제살인마들에게 섬겨바치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생화학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오늘날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전조선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제의 야수적본성은 이미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감행된 세균전만행과 전후 온 남녘땅을 세균무기의 시험장, 인체실험기지로 전락시킨것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제는 지난 1998년 9월 해외미군기지들중에서 제일먼저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탄저균연구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비밀리에 생체실험을 진행해오고있다.

특히 특등친미주구 박근혜패당이 집권한 첫해인 2013년 여름부터 방대한 생화학전쟁장비들과 무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피뢰패당과 함께 북침생화학전쟁연습을 핵전쟁연습과 병행하여 공공연히 벌려놓고있다.

미제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의 공범자인 박근혜패당은 지금 탄저균반입과 관련한 《정부》의 즉시대응을 촉구하는 야당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7월로 예정된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회의》라는데서 론의해보겠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이고있다.

하기야 수백명의 애어린 생명을 바다물속에 통채로 수장시키고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은 박근혜패당이 외세의 생화학무기앞에서 전민족이 멸살되든 강토가 황폐화되든 안중에나 있겠는가.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돌격대인 박근혜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수 없고 우리 겨레는 핵전쟁과 생화학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세기를 이어가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고있는 미제와 박근혜패당과 같은 추악한 친미, 종미매국역적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보장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전멸시킬 야망밑에 국제인권규약까지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생화학전쟁도발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상 최악의 인권말살범죄로서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국제사회가 인류의 생명을 우롱하며 야만적인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의 피뢰역적패당을 특급전범자로 국제재판정에 올려세우고 단호히 심판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외세와 함께 동족을 상대로 한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안전을 수호하는 우리의 정의의 전쟁억제력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그 어떤 도발도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4일
평 양

◎ 고원의 나라 에티오피아 ◎

오늘은 우리 나라와 에티오피아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맺어진 때로부터 40돐이 되는 날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이름은 고대그리스사람들이 이 지방을 《에티오빠스(해빛에 탄 얼굴)》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수도는 아디스 아바바이고 공용어는 암하라어이며 영어와 아랍어도 널리 쓰이고있다.

에티오피아는 1885년부터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0년대초에 독립하였다. 1974년 9월 봉건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87년 9월 에티오피아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94년 11월 국호를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으로 고쳤다.

에티오피아는 령토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지붕》으로 불리우는 에티오피아고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고원에는 해발높이가 4 000m를 넘는 높은 산들이 많다.

흥미있는것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낮은 지대인 아파르분지도 이곳에 위치하고있다는것이다.

에티오피아고원은 평균해발고가 1 800~2 000m나 되지만 열대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지역의 날씨는 비교적 선선하다. 이것이 농업발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알곡작물은 수수, 강냉이, 보리, 콩 등이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10대 커피생산국의 하나로서 커피가 외화소득의 60%를 차지하고있다. 《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나라에서 커피의 재배력사는 오래다.

재배커피외에도 40만정보에 달하는 야생커피나무숲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흰커피》는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국제시장에서도 수요가 매우 높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의 종과 마리수가 많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에서는 자연공원들을 꾸려놓고 이를 통하여 희귀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정부는 대내적으로 빈궁을 청산하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뽈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협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우리 나라와 에티오피아인민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밑에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온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에티오피아인민의 적극적인 노력은 앞으로 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안 철 권

ㄱ-51087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